

조이스의 언어실험: 「자매들」의 'idle/idol'을 중심으로*

홍 덕 선

I

--Look here, Cranly, he said. You have asked me what I would do and what I would not do....I will not serve that in which I no longer believe, whether it call itself my home, my fatherland, or my church: and I will try to express myself in some mode of life or art as freely as I can and as wholly as I can, using for my defence the only arms I allow myself to use - - *silence, exile, and cunning*.

Cranly seized his arm and steered him round so as to lead back towards Lesson Park. He laughed almost slyly and pressed Stephen's arm with an elder's affection.

--*Cunning* indeed! he said. Is it you? you poor poet, you!¹⁾

조이스는 그의 전 작품에서 예술가로서 작가 자신의 모습을 이곳 저곳에 뿌려놓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은 그 밑바탕에 아이러니를 짙게 깔고 있지만 예술가로 성장해 가는 작가의 자서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위에 인용

* 이 논문은 1995년 5월 한국영어영문학회 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1. James Joyc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1968), pp. 246-7.

한 귀절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 마지막 부분으로 스티븐이 유럽으로 떠나기 앞서 친구인 크랜리와 마지막 만나 자신의 결심을 토로하는 장면이다. 흥미로운 것은 예술가로서 불안한 미래의 삶을 선택하면서 조이스 자신이 스티븐의 입을 빌려 자신이 택할 방어 무기로서 “침묵, 유랑, 그리고 교활함”을 열거하고 있다. 이 세가지는 조이스가 천명한대로 단지 자신의 생활 방법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쓰고 있는 서술적 책략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활함” 또는 “狡智”(cunning)란 의미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다. 크랜리는 스티븐을 향해 “초라한 시인 네가 교활할 수 있겠어?” 라고 감탄이 섞인 조롱의 반응을 보이지만, 과연 그 “교활함”의 서술적 성격이 무엇이며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떻게 출현되고 있을까?

조이스는 흔히 언어의 마술사라고 칭한다. “언어로서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자신의 아내 노라 (Nora)에게 뽐낸 것처럼 조이스는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듯 싶다. 그러나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첨예하게 보듯이 언어의 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 세계를 창조하려는 예술가의 치열한 실험정신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언어를 해체해서 다시금 언어의 미로를 창조하려는 예술가의 극단적 실험성을 조이스의 교활함이라고 부른다면, 교활한 언어 실험을 우리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목격하게 된다. 조이스는 그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천박스런 문체로 기술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첫 소설에서부터 언어 선택에 치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²⁾

조이스는 언어 사용에 있어 하나의 어휘에 한가지 의미만이 아닌 가능한 한 여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함으로서 언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이스에게 있어서 어휘는 단어적 의미만을 지시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 어휘의 오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전통이 담겨 있는 맥락을 모두 함축한 상징이 된다. 이에 따라 조이스의 세심한 어휘 선택으로 한 단어는 작품에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하며 확장되어 간다.

2. James Joyce, *Letters of James Joyce*, vol. 2,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p. 134.

의미를 생성해 가는 언어 기법 중의 한가지는 조이스 특유의 同音異意 (pun)라는 언어사용이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연상작용에 의한 다른 의미를 동시에 지칭하는 의미의 다원성 (plurality)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피네간의 경야」가 낭송을 통해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을 통해 연상작용을 해나가야 하는 독자들은 자연히 그 독서가 수동적이 될 수 없고 능동적으로 텍스트에 참여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또한 즐거움이 생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언어 실험을 조이스의 첫 단편 「자매들」 (The Sisters)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II

조이스의 첫 단편 「자매들」은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18편의 단편 중에 중편에 속하는 「사자들」 (The Dead)을 빼고는 아마도 이제까지 「더블린 사람들」에 관한 연구 비평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단편이라고 하겠다. 80년대 이후 「제임스 조이스 쿼터리」 (James Joyce Quarterly)에 실린 논문 중에 단편으로는 「자매들」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예증할 수 있다. 비록 10쪽에 지나지 않는 짙막한 단편이지만, 이 작품은 “대단히 복잡하고 암시적인 문체로 쓰여 있어 「율리시즈」나 「피네간의 경야」에서 보는 서로 뒤엉킨 교묘한 형태와 오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논평처럼 조이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한다.³⁾

그러나 이 작품의 성숙성과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무언가 불명확한 모호성으로 독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것은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간접적인 서술방식과 상징적 암시를 내포한 언어 사용에 의한다. 비교적 주제는 명백하게 주어진 듯 하지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와 이야기의 결실인 서술된 내용 사이에는 신비스런 긴장감이 늘 자리잡고 있다.

3. Fritz Senn,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Joyce's 'The Sisters,' JJQ 2 (1965): 66.

즉, 화자인 소년은 무성한 소문을 해석하며 사건의 진상을 이해하려는 고립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지만 해석의 과정에서 언제나 중심을 빗나가게 하는 간극과 괴리, 혼동과 머뭇거림, 그리고 침묵에 의해 소년의 노력은 좌절되고 불안정한 결말로 공백을 남긴다.⁴⁾

이 단편의 특이한 서술방식과 함께 흥미로운 점은 상징적인 언어 사용이다. 이 작품은 몇 번의 추고 과정에서 이미 사실주의적 경향을 벗어나 상징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도록 변모되고 있는데, 복잡한 서술상의 여러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상징적 기법이기도 하다.

화자인 소년과 독자들을 혼란시키는 중심된 사건은 플린 (Flynn) 사제가 영적 마비에 이르는 원인에 관한 것이다.

There was no hope for him this time: it was the third stroke. Night after night I had passed the house (it was vacation time) and studied the lighted square of window: and night after night I had found it lighted in the same way, faintly and evenly. If he was dead, I thought, I would see the reflection of candles on the darkened blind for I knew that two candles must be set at the head of a corpse. He had often said to me: *I am not long for this world*, and I had thought his words idle. Now I knew they were true. Every night as I gazed up at the window I said softly to myself the word *paralysis*. It had always sounded strangely in my ears, like the word *gnomon* in the Euclid and the word *simony* in the Catechism. But now it sounded to me like the name of some maleficent and sinful being. It filled me with fear, and yet I longed to be nearer to it and to look upon its deadly work.⁵⁾

4. 「자매들」의 독특한 서술기법에 관해서는 본인의 영문 논문을 참고할 것.

“The Gnomonics of ‘The Sisters.’” 『成英論叢』 2 (1992): 5-24.

5. James Joyce,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자매들」의 첫 단락은 조이스의 비평가들이면 누구나 지적하듯이 이 단편을 비롯한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 주제와 모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화자인 어린 소년의 주관적 의식에 초점이 모여진 첫 단락은 언어와 리얼리티 간의 관계에 골몰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어린 스티븐 디덜러스가 언어가 가지는 뉘앙스에 섬세한 의식의 촉각을 내비치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 소년은 기호(sign)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한다. 창문에 반사된 촛불,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제의 말 등의 뜻을 살핀다. 더군다나 이탤릭 체로 쓰여진 “마비” “노먼” “성직매매”라는 특이한 어휘를 혼자 되내기며 그 의미를 새겨보려 한다. 이 어휘들은 “무언가 악의적이고 죄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어린 소년을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하며 동시에 그것의 정체를 밝혀보고 싶은 강한 유혹으로 이끌게 한다. 이후 독자는 어린 소년을 따라가며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함축한 듯이 보이는 이 어휘들의 존재의미를 밝혀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작품의 중심 주제이며 모티브로 등장하는 “마비” “노먼” “성직매매”는 일상적 어휘와는 거리가 먼 흔치 않은 어휘로서 이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다. 즉, “마비”는 세번이나 졸도한 사제의 신체적 마비와 아울러 그의 도덕적, 영적 마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의 출판업자인 리처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듯이 아일랜드의 지방적 편협성, 영적 무기력, 도덕적 불감증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황무지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마비”가 주제적 측면을 밝히고 있다면, “노먼”은 문체적 특성을 지적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노먼”은 평행사변형의 한 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불완전한 형태를 가리킨다. 주제상의 “마비”와 상응하기도 하는 “노먼”이란 불완전성은 서술상 작품 곳곳에 의도적으로 나타난다. 화자인 소년은 아주 예민한 관찰력을 지닌 소년이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로 쌓여있다. 마치 “어두움에 덮힌 블라인드”(darkened blind)처럼 사건의 핵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이해의 한계에 부딪친다. “나는 그것 [마비라는 단어]

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치명적인 작용을 들여다 보고 싶은” 소년이 었지만 작품 전반에 깔린 서술상의 침묵과 머뭇거림, 생략, 불완전한 문장, 어휘의 오용 등은 언제나 그의 접근을 가로 막는다.

한편, 종교상의 커다란 죄에 속하는 “성직매매” 역시 종교적, 도덕적, 영적 마비를 의미하지만 사제와 성직매매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모호하다. 바로 이것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 화자인 소년의 작업이며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사제가 중심 인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첫 대목에서 “나는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꺼야” 라는 사제의 말이나 (John 8:23, John 14:19), “나는 그분의 말이 근거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라는 표현은 (Matthew 12:36) 이미 성경상의 귀절을 암시함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작품 안에서 성직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소년의 꿈에 나타난다.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려는 듯이 머뭇거리는 사제는 성직매매라는 죄와 관련된 듯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유령처럼 사라지며 꿈에서 깨어남으로써 의혹을 더욱 일으킨다. 우리는 따라서 사제이면서도 사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영적 마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선 영적으로 마비된 풀린 사제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 작품에서 “아일랜드 도덕사의 한 장”을 기록하려고 한 조이스는 세번이나 졸도 끝에 죽은 사제에게서 아일랜드 민족의 도덕적, 종교적, 영적 마비의 표본으로 내보이고 있다. 조이스의 동생 스타니스러스 (Stanislaus Joyce)도 이 사제는 “사제들로 짓눌린 마비된 아일랜드의 삶을 상징” 한다고 적고 있다.⁶⁾ 실제로 부모가 없어 보이는 화자인 소년에게 이 사제는 대부 (God Father)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사제이기에 교회 자체를 대변하기도 한다. 「자매들」은 몇번의 재수정 단계를 겪었는데, 「아일랜드 농장」 (Irish Homestead)라는 잡지에 실린 초고본에는 사제가 죽은 날을 정확한 년도 표시가 없이 7월 2일 (“July 2, 189_”)로, 그후 수정본에는 1890년 7월 2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책으로 나온 출판본에는

6. Stanislaus Joyce, “James Joyce: A Memoir,” trans. Felix Giovanelli, *Hudson Review* 2 (1949-50): 502.

1895년 7월 1일로 바뀌어져 있다. 7월 2일이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축제일 (the Feast of the Most Precious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이라는 설명은 우리가 본 논문에서 뒤에 살펴 볼 깨어진 성찬용 잔의 의미를 뒷받침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7월 1일은 윌리엄 3세 (William III)가 제임스 2세 (James II)를 격파한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일로 이 승전은 “아일랜드 국가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희망을 여지없이 파괴시킨 날”이기도 하다.⁷⁾ 조이스는 임종일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플린 사제를 아일랜드의 종교적이며 역사적인 상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제는 좀 “괴상하고” (queer) “수상한” (uncanny) 데가 있었으며, 삶을 “포기한” (resigned) 또는 삶에 “좌절한” (disappointed) 듯 보이는 사람으로 비치었다. 무엇보다 사제의 누이동생인 일라이저의 지적이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she said. The duties of the priesthood was too much for him. And then his life was, you might say, crossed. (17)

죽은 사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이어서 사제의 책무를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민한 꼼꼼함이란 신경성 노이로제의 일종으로 정신분열의 증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매매와의 연관성은 없다. 브레멘이란 조이스 학자에 의하면 “꼼꼼함 [scrupulosity: 양심의 가책, 주저]이란 기독교 교회에서 매우 실제적인, 마비의 잠재성을 지닌 정신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사제나 젊은 신자가 지나치게 죄의식에 집착하여 실재하지도 않는 죄를, 특히 성적인 것과 결부된 엄중한 죄를 상상하는 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⁸⁾ 이와 관련하여 많은 비평가들이 어린 소년에 대한 사제의 관심이 정상적인 스승의 역할을 넘어서 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이 아

7. Florence L. Walzl, "A Date in Joyce's 'The Sisters,'"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4 (1962): 183-7.

8. Brian A. Bremen,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A Re-examination of Joyce's 'The Sisters,'" *JJQ* 23 (1986): 63.

닌가 하는 의혹을 품으며 이를 작품상에서 예시해 보려고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본 논문은 언어적 상징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을 맺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She stopped suddenly as if to listen. I too listened; but there was no sound in the house: and I knew that the old priest was lying still in his coffin as we had seen him, solemn and truculent in a death, an idle chalice on his breast.

Eliza resumed:

--Wide-awake and laughing-like to himself....So then, of course, when they saw that, that made them think that there was something gone wrong with him.... (18)

임종한 사제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러 찾아온 소년과 소년의 아주머니에게 죽은 사제의 관을 모신 앞에서 일라이저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다. 대화의 내용은 죽은 사제의 무언가 잘못된, 마치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처럼 변해 버리게 되었던 숨은 비밀을 누이동생이 이제 나직만히 드러내고 있다. 아니면 마치 사제를 대신하여 누이동생이 고해성사를 하듯이 낱알이 죄를 고백하는 듯 독백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관을 모신 바로 앞에서 사자의 흉을 보는 듯 싶어 사실상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오빠의 흉을 보고 있는 동생도 거북살스러운 듯 갑자기 말을 멈추고 머뭇머뭇 거린다. 속삭임 속에 침묵이 끼어 들고, 누이동생이 흉보며 낱알이 밝히는 가운데에는 미진한 생략과 머뭇거림이 들어 있다. 침묵해야 할 시기에 입을 열고 있으며, 밝혀나가야 할 순간에 침묵을 지킨다.

상호 모순되는 듯 싶은 서술적 상황에서 정작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제는 사자로서 입을 다물고 엄숙한 듯 진중하게 무대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신비하게 누워있다. 조잘거리는 누이동생의 말을 조롱하듯 두 눈을 꼭 감고 입술을 꼭 다문 채 검은 사제복에 싸인채 신비의 태산처럼 조용히 누워 있다. 그의 엄숙한 모습을 더욱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은 누이동생이

들려준 오빠의 옛 모습이다. 어두운 고해실에 혼자 앉아 눈만 희멀거니 크게 뜨고, 홀로 회죽회죽 웃던 오빠의 정신나간 모습은 이제 무언가 엄숙한 듯 둔탁한 듯이 누워있는 사제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러한 부조화스런 상황을 강조하듯이 방 한편 가운데에 누워있는 사제의 가슴 위에는 성찬용 잔이 놓여 있다. “검고 동굴 같은 쿿구멍”에 잿빛의 끔찍스럽고 거대한 “얼굴 주위에는 드문드문 하얀 모피털”이 둘러 쓴 모습은 마치 짐승의 시체를 연상시키지만, 검은 수의의 한가운데에는 촛불에 반짝이는 성찬용 잔이 돋보이게 위치하고 있다. 그 잔은 바로 이 사제의 삶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킨 장본인이었다.

—It was that chalice he broke....That was the beginning of it. Of course, they say it was all right, that it contained nothing, I mean. But still....They say it was the boy's fault. But poor James was so nervous, God be merciful to him! (17)

예수의 피를 담았던 켈리스탄 기독교에서 예수의 몸체와 동일시되는 성스러운 상징물이 된다. 사건의 핵심은 깨어뜨린 성찬용 잔에 있지만, 다행히도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담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사제의 실수가 아닌 시동의 잘못으로 깨어진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이러한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의 사제는 이 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한 듯 성찬용 잔을 깨뜨린 사건 이후로 점차 정신나간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사제에게 있어 이 잔은 그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상징이었기에 그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상징이란 어느 대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상징물은 의미가 부과된 것이지 그것이 의미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사제는 성찬용 잔 자체에 자신의 믿음을 측량하는 표시물로서의 의미를 부과하였기에 잔이 깨어지자 마치 신성한 주님에게 죄를 지은 듯 그 일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과하였다.

성격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제였다고 해명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사제에게 있어 자신의 온 존재가 걸려있는 듯 중히 여기는 신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깨어진 잔에는 답을 수 없는 존재인가? 깨뜨린 잔은 다시 본래의 새 잔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한번 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신인가? 회개함으로써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하는 무한한 은총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제는 천주교의 사제이기 보다는 예정설을 주장한 칼빈과 같은 신교에 영향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천주교 내에서도 예정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17세기 중엽 로마와 특히 제수이트교로부터 이단으로 몰렸던 장세 이름을 신봉한 사제는 아닌가?

신에 대한 사제의 믿음 형태는 무언가 의혹을 남긴다. 여하튼 이 사제에게 있어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에 불과한 성찬용 잔과 동일시 되고 있다. 아이리쉬타운 (Irish town)이란 더블린의 하층민들의 거주 지역에서 성장하였지만 로마에까지 유학을 하였던 이 사제는 라틴어에도 정통한 듯 싶고 신학의 세세한 면까지 통달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믿음의 형태는 무언가 의심을 낳게 한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제의 신앙관을 점검해 볼 수 있다.

He had studied in the Irish college in Rome and he had taught me to pronounce Latin properly. He had told me stories about the catacombs and about Napoleon Bonaparte, and he had explained to me the meaning of the different ceremonies of the Mass and of the different vestments worn by the priest. Sometimes he had amused himself by putting difficult questions to me, asking me what one should do in certain circumstances or whether such and such sins were mortal or venial or only imperfections. His questions showed me how complex and mysterious were certain institutions of the Church which I had always regarded as the simplest acts. (13)

일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소년과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사제는 서로 친구 이면서도 스승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미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를 비롯하여 쓸데없이 보이는 기독교 의식의 세세한 면을 어린 소년에게 가르치면서 교회의 교묘함과 신비를 은근한 쾌락으로 맛보는 듯 싶은 이 사제는 정상적인 모습을 벗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죄의 종류를 나열함으로 인해 그의 여동생 일라이저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이 사제의 지나치게 꼼꼼한 성품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종교적으로도 주저함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사제이기에 아무 것도 채워있지 않은 성찬용 잔이 깨어진 사건을 모두들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는데도 그는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플린 사제는 켈리스란 상징물을 신 자체와 동일시 한 것이다. 마치 금칠한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바알교도들의 우상 숭배처럼, 성찬용 잔은 사제에게 있어 “우상”(idol)이라고 하겠다.

우상이란 “이미지 또는 유사물”(an image or similitude)라는 사전의 설명처럼 실체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처음 인용하였던 장면으로 되돌아 가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죽은 사제의 가슴 위에 놓인 반짝이는 “idle chalice”를 보게 된다. 성찬용 잔을 수식하는 “idle”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 김종건 교수의 번역본에 의하면 “맥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not in use or operation)이나 “활동하지 않고 있는”(inactive)이란 사전적 설명을 이 작품의 문맥상 의역한 것으로 여겨진다.⁹⁾ 그러나 한편, *O.E.D.*를 찾아 보면 “idle”은 고대 영어에서 “어느 실제 가치, 유용성, 또는 중요성이 비어 있는; 따라서 효과적이지 못한, 무가치한, 경박한, 사소한”(void of any real worth, usefulness, or significance; hence, ineffective, vain, frivolous, trifling)으로, 중세 영어에서는 “텅빈”(empty, void)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idle chalice”의 “idle”은 본래 의미였던 “텅빈”이란 의미를 사실상 함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예는 본 논문에서 인용한 일라이저의 말에서 찾게 된다. “그것 [성찬용 잔]은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it contained nothing)라는 일라이저의 말을 따르면 “텅 빈”이란 의미를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다.

9.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김종건 역 (범우사, 1988), 31쪽.

흥미롭게도 조이스는 “idle”이란 단어를 이 작품 처음에서도 쓰고 있다. “He had often said to me: *I am not long for this world*, and I had thought his words idle. Now I knew they were true.”

여기에서도 “idle”은 우리가 현재 흔히 쓰는 “게으른” (lazy)의 의미가 아니라, “허튼, 근거없는” (groundless, of no real worth)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허튼, 근거없는”이란 뜻도 중요한 실체가 빠져있는 “텅 빈”이란 본래 어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특이하게 두번씩 사용한 “idle”은 함축적 중요성을 내비친다. 유달리 언어선택에 민감하였던 조이스가 이 단어를 본래 어원적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하였을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 주된 쏫점이 되어 있는 “idle/ idol”의 대비를 지적해 보자. 동음이의 (pun)라는 말장난에 능란하였던 조이스는 그의 첫 작품에서 이러한 말장난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언어 사용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을 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idle”이란 어떤 중요한 실체가 빠져 있고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dle”이 일종의 부재 (absence)를 가리킨다면, “idol”은 실체의 이미지로써 그 부재의 존재 안에 무언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이다. 『피네간의 경야』에서 다음 귀절은 “idle”과 “idol”의 상호 변용을 시도하고 있다. “Or ledn us alones of your lungorge, parsonifier propounde of our edelweissed idol worts!”¹⁰⁾ 여기에서 “idol worts”는 “idle words” 또는 “idol words”로 읽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더군다나 “parson”이란 이 단편에 나오는 사제 (priest)와 일맥상통한다.¹¹⁾

위에 인용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한 상반된 두 세력의 축이 병존하는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죽은 사제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가 애지중지 하던 성찬용 잔을 꼭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은 텅 빈 잔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죽은 사제는 실체가 빠진 텅 빈 성찬용 잔에 실체의 이미지를 실체인 양 부여하는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단순한 그릇일

10. James Joyce,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75), p. 378.

11. Senn, 67.

수도 있는 잔이 마치 신 자체인 것처럼 섬김으로써 신앙적으로 왜곡된 마비의 양상을 드러낸다. 여기서 성직매매의 의미가 살아난다. 성직매매란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 (Simon Magus)이 사도들로부터 돈으로 성령의 힘을 사려고 하는 죄에서 나왔다. (8:10) 따라서 성직매매의 의미를 “종교적 영적 존재를 물질적 존재로 대치시킬 때 생기는 죄”로 해석해 나간다면 이 사제는 신의 존재를 성찬용 잔으로 일치시킨 성직매매의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작품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그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 (There is no hope for him this time) 이 말은 젊은 시절 한때 의학을 공부하였던 조이스가 직접적으로는 플린 사제에게, 상징적으로는 아일랜드의 교회 또는 아일랜드 민족에게 내린 의학적 진단이다.

“우상” (idol)이란 像 (image)이며, 무엇인가를 대변하는 (representing) 대상일 뿐, 어느 실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대상물에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서 “우상”은 형성된다. 사제에게서 깨어뜨린 “탕빈” (idle) 잔은 사실상 그의 “우상” (idol)이다. 죽으면서도 영원히 가슴위에 올려 놓고 붙들고 있는 허상이다.

조이스는 이처럼 흔히 쓰이지 않는 “idle/idol”이란 어휘의 同音異義를 사용하여 말장난을 하면서도, 작품의 중심 내용을 깊숙히 건드리고 있다. 그의 첫 작품에서 사용한 이러한 언어 유희는 후기 작품에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시도되는 텍스트의 기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텍스트란 idle이란 기표에서 idol이란 또하나의 기표를 생산해 가는 소위 “doubling”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어라는 기표에 한가지 고정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을 세워가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기표란 늘 무언가 텅빈 틈새와 간극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그 틈새를 메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대치할 다른 기표를 세워나가는 대치, 배가, 자기 복제, 차연, 반복의 과정이다. 조이스는 바로 이러한 doubling의 창조적 언어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용 문헌

- Bremen, Brian A.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A Re-examination of Joyce's 'The Sisters.'" *JJQ* 23 (1986): 57-71.
- Hong, Dauk-Suhn. "The Gnomonics of 'The Sisters.'" 『成英論叢』 2 (1992): 2-24.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1969.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1968.
- ,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75.
- , *Letters of James Joyce*. Vol 2,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 Joyce, Stanislaus. "James Joyce: A Memoir." *Hudson Review* 2 (1949-50): 496-509.
- Senn, Fritz. "He Was Too Scrupulous Always,' Joyce's 'The Sisters.'" *JJQ* 2 (1965): 66-72.
- Walzl, Florence L. "A Date in Joyce's 'The Sisters.'"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4 (1962): 179-187.
- 조이스, 제임스. 『더블린 사람들』 김종건 역. 범우사, 1988.